

“고성산불, 탈원전 정책 따른 관리부실 아니다”

한전 “변압기 등 보수·정비 비용 줄여 발생 주장은 사실과 달라”

지난해 영업적자 탈원전 영향 아닌 국제 원료가격 급등 탓

한국전력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이 탈원전·태양광 정책에 따른 관리부실로 유발됐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와 개폐기 등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다.

한국전력은 고성산불과 관련,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의 경우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원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적자 여부와 상관 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앞서 한전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1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의 경우 ▲배전설비의 성능저하에 따라 설비를 교체 보장하는 예산(투자예산)과 ▲배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수선하는 예산(손익예산)으로 구분해 집행하고 있다.

설비교체보강 예산 내역을 보면 지난 2014년 8258억원인 예산은 2015년 1조4992억원으로 1년 만에 81.5% 급증했고, 2016년 1조5219억원(1.5%), 2017년 1조5675억원(3%)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1조1470억원으로 전년보다 26.8% 급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설비교체보강 예산은

《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설비교체보강	8,258	14,992	15,219	15,675	11,470
② 점검수선	2,282	2,452	2,731	2,946	2,948
합계	10,540	17,444	17,950	18,621	14,418

※ '19년 점검수선예산 : 4,840억원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20년 지속되기 때문에 과거 3년(2015~2017년)간 집중적인 투자로, 지난해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돼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3년 평균 투자비는 1조5295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서는 85.2% (7037억원)가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전은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손시 등에 소요되는 점검수선예산(손익예산)은 매년 증액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내놓은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 자료를 보면 점검수선 예산은

2014년 228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9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점검수선 예산도 지난해 집행실적보다 64.2% 늘어난 4840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전은 최근 3년간 설비교체보강 및 점검수선 평균투자비는 약1조8000억원이지만, 최근 10년간 평균은 약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1조4000억원은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점검수선에 대한 예산은 늘 넉넉히 배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이(異)문화 감수성” 부족 한류 콘텐츠 소비 영향

콘진원 ‘한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 주장

우리나라와 한류 소비국간 ‘이(異)문화 감수성’ 부족이 한류 콘텐츠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현지 친화적 한류 확산을 위한 소비국별 맞춤형 협업과 쌍방향 문화교류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최근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을 위해 ‘신한류’를 개념화하고, 이를 통한 로드맵을 정립한 ‘한류의 패러다임 전환과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신(新)한류’는 기존 현지 진출만을 고려했던 성장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해, 한류가 주요 소비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류 콘텐츠 향유 및 소비활동’을 지칭한다. 이에 따라 한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신한류’로 개념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운영해나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자료는 주요 7개국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한류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4가지 시사점을 다뤘다.

난에 띄는 점은 한국과 한류 소비국간 ‘이(異)문화 감수성’ 부족이 한류 콘텐츠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있는 비지한파(非知識派)가 한류 소비국의 ‘반한류’ 정서를 자극하며, 일부 한국 사회의 이문화에 대한 편견 또한 한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류 경험이 적은 비아시아권의 경우, 제작 국가를 짐작하기 어려운 게임이나 기타 소비재(장르) 사용 시 한국산임을 인식하지 않고 이용하는 ‘국적 비인식 소비’가 두드러졌다. 한류 콘텐츠 이용을 계기로 한국산 소비재에 호기심을 보였으나 실제 구매 및 이용 의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류가 국가 브랜드 제고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한류를 국가주도 프로젝트로 여기는 현지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콘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외부 지체 요인 관리 ▲이문화 감수성 증대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 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 ▲현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비즈니스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교류 이상 6가지의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T, 양배추 소비 활성화·해외수출 추진 나섰다

공급과잉 가격 20% 하락

22만5000t 시장 격리

물류비 지원 등 수출 장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가격이 하락한 양배추 소비 활성화와 수출 추진에 나섰다.

9일 aT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채소가격 안정제 등을 활용해 양배추 출하 면적 조절과 수매비축, 지자체 중심의 자율 감축 등을 통해 공급과잉 물량 22만500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이 외에도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양배추를 비롯한 월동 채소류의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배추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8일 기준(상품1포기당) 2463원으로 최근 5년 평균 가격 3119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평년의 경우에는 겨울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월에는 가격이 상승했다가 2~4월은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양배추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1월부터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3월 농업관측월보를 통해 겨울 양배추 시세가 낮게 형성된 원인으로 주산지인 제주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생육기 기상호조로 생산

aT 급식관리단 및 학부모 점검단 위촉식

일시 : 2019. 4. 4(목)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aT ‘급식관리단 및 학부모 점검단’ 위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서울 양재동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관리를 위한 ‘aT 급식관리단 및 학부모 점검단’ 위촉식을 가졌다.

량은 대폭 늘어났지만 소비 부진을 이유로 꺾었다.

aT는 작황 호조로 양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 이로운 양배추를 적극 소비해 줄 것을 호소했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양배추는 올리브, 요구르트와 더불어 서양의 3대 장수식

품으로 알려져 있다.

위궤양, 위장트러블에 효과가 탁월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변비 예방과 유해물질 배출에 도움이 되며 피부세포 노화도 막아준다.

aT 관계자는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 건강이 염려되는 현대인의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

천한다”고 말했다.

월동채소 소비촉진을 위해 aT에서 제공 중인 레시피와 가격동향 자료는 aT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프러스(농수산물 유통정보 KAMIS), 농산물유통정보(kam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10일부터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한콘진)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마련된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의 2019년 제1차 필기시험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실시한다.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2회 실시되고 있다. 1차 필기와 2차 실기 시험으로 치러지며 올해 제1차 필기시험은 5월 12일 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 5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게임산업 현장 중심

의 출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자격의 실효성을 높였다.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을 아우르는 개론적인 공통 과목을 삭제하였으며, 게임제작 툴 등 실무 중심의 구체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자격별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번 시험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www.kgq.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 관련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실(031-759-2029)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국내주식형 신규 위탁운용사 6개 선정

사학연금공단은 9일 국내주식형 신규 위탁운용사 6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제안서를 접수한 자산운용사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거쳐 1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4~5일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적임투자형 1개, 배당주형 2개, 성장형 2개, 액티브펀드형 1개의 정규 위탁운용사를 확정했다.

사회책임투자형에는 DB자산운용, 배당주형에는 KB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성장형에는 DGB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액티브펀드형에는 한화자산운용을 각각 선정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위탁운용사들에 대해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여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